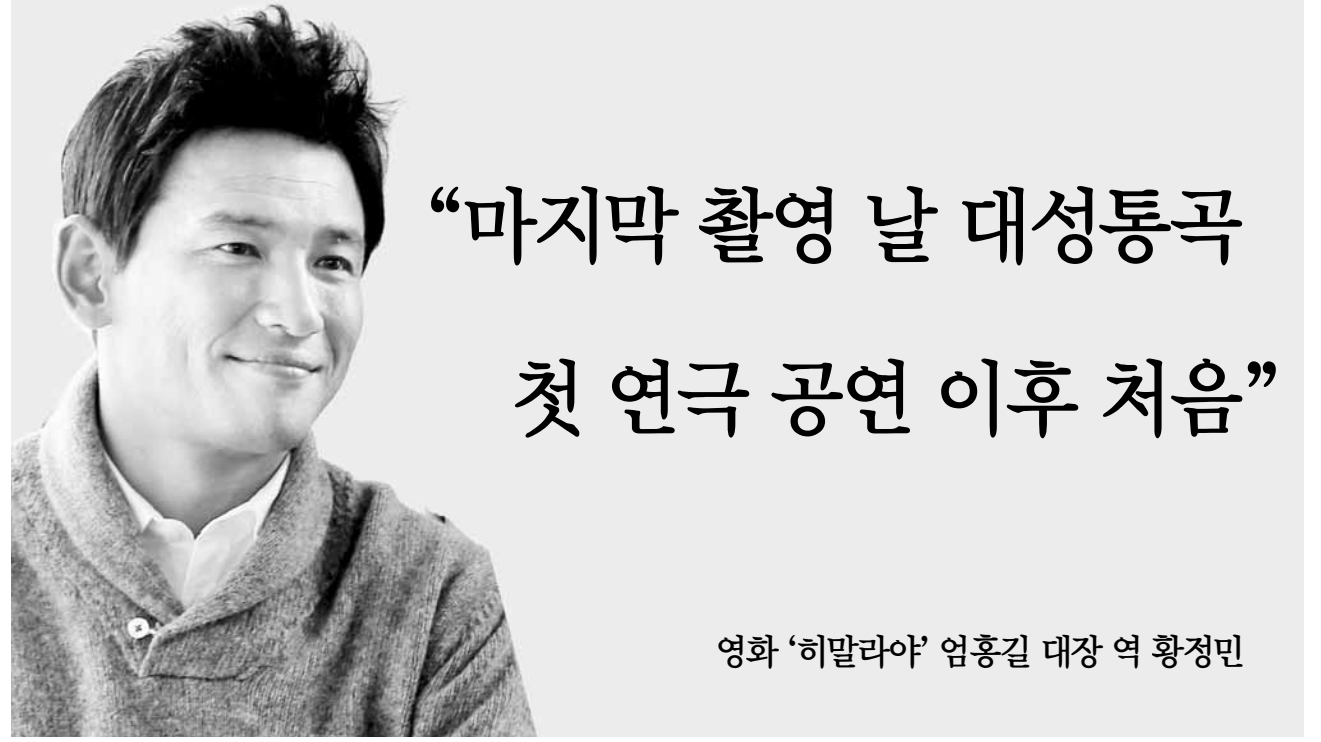


TV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코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만만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방송 50 KBC 생방송
11	30 나는 몸신이다(재)	00 특집 무형유산 6마당 우리 전통의 맛과 흥 55 인생 우리말	00 일일 드라마 (다 잘될 거야)(재)	10 닥터365 15 글로벌 문화유산 50 SBS 12 뉴스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15 인간극장 스페셜 (내게 온 사랑 1~3부)	45 닥터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세계가 품은 한국의 미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0 세상발견 유레카
2	00 이웃집 찰스(재) 55 인생 우리말	00 KBS 뉴스7 55 트든생활제초	00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착상 위키	00 3시 뉴스 브리핑
3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행복의 조건, 신뢰(재)	00 TV 유치원 30 이욱정PD의 요리인류 키친 40 동물의 세계	00 고향이 보인다 30 푸르기 탐구 생활
4	5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지방자치 20년 특별생방송 (지금이 살아야 나리가 산다 1~2부)
5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생생정보1	10 생방송 빛날
6	10 부르면 갑니다 며슴아들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7	30 서민갑부(재)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할머니)	30 2TV 저녁 생생정보1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8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9	50 채널A 스포츠	00 명진관리 (천하의 개놈시대) 55 송타	00 수목 드라마 (장사의 신 객주2015)	00 수목미니시리즈 (달콤살벌 패밀리)
10	00 구원의 밥상	00 KBS 뉴스라인 40타초선을 사랑한 의사 예비수 42년의 기록	10 해피 투게더	10 위대한 유산
11	40 카톡쇼 X	30 넷워킹 문화특선 울댓 유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 24 55 MBC 다큐프라임
12				35 나이트 라인



“마지막 촬영 날 대성통곡
첫 연극 공연 이후 처음”

영화 ‘히말라야’ 엄홍길 대장 역 황정민

“산보다 위대한 것은 사람이죠. (이번 영화에도) 사람이 있으면 산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는 16일 개봉하는 영화 ‘히말라야’에서 엄홍길 등반대장으로 분한 황정민(45)은 이번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한 마디로 표현해달라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그가 출연했던 영화 가운데 지난해 연말 개봉한 ‘국제시장’은 올해까지 142만명이 넘는 관객이 극장을 찾았고, 지난 여름 개봉한 ‘베타랑’은 1341만명을 넘겨며 올해 개봉한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관객을 모았다.

2005년 엄홍길 대장이 주축이 된 휴먼 원정대 실화를 바탕으로 한 ‘히말라야’는 동시계 개봉작인 최민식 주연의 ‘대호’와 함께 이달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힌다.

최민식과 한 판 붙게 되는 각오가 어떠냐고 묻자 “대결은요, 무슨”이라며 “최민식 웅(翁)에게 감화”라며 웃었다. 황정민은 전작 ‘신세계’에서 최민식과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다.

“지난여름에 ‘베타랑’과 ‘암살’이 흥행 쌍끌이를 했듯이 ‘히말라야’와 ‘대호’도 이렇게 충분히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에 대한 관객의 수요가 커졌잖아요. ‘대호’와 동시기에 개봉하는 사실을 어찌 보면 반길 일이지. ‘대호’를 연출하신 박훈정 감독님을 비롯해 그 영화 스태프가 모두 제 식구들과 다름없어요. ‘대호’는 잘 돼야 해요.”

“이번 영화를 촬영하면서 느낀 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구나’였어요. 촬영 배경이 산인 이번 영화에서 어느 순간 산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더라고요. 서로 애듯할 정도로 뜻을 품지다 보니 실제 휴먼원정대처럼 동료애와 에너지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긴 힘이 ‘히말라야’에 담겨 있었어요.”

위험하고 어려운 촬영 도중에 공포를 느낀 적은 없었는지 묻자 “실제 엄홍길 대장처럼 영화에서 엄홍길 대장 역을 맡은 나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신기한 것이 사람은 역할 따라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정민은 2005년 엄홍길 대장의 목소리에서 낯선 거친 쇠소리를 만들어 내려고 촬영 현장에서 3일 내내 소리를 질렀다는 일화도 전했다.

“해발 8000m를 올라가면 일단 공기가 굉장히 건조하고, 가쁜 호흡으로 찬 공기를 계속 들이키다 보면 성대가 갈라지거든요. 산악인 느낌의 리얼리티를 위해 일부러 목이 쉬게끔 시간만 나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목이 쉬는데 딱 3일 걸리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들어 보니 근사해서 나중에 후사녹음 때도 집에서 사울 동안 똑같이 소리를 질러 쓴 목소리를 만들었어요.”

황정민은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 촬영 날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 세트장 뒷산에 가서 대성통곡했다”며 “그렇게 운 것은 열일곱 살 때 집안의 모진 반대를 무릅쓰고 연극 공연을 마쳤을 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전했다.

“김민기 선생님의 ‘봉우리’라는 노래를 참 좋아해요. 뭐하러 그렇게 워만 보느냐는 가사가 예술이네요. 이번 영화 ‘히말라야’의 원정대원들도 단 한 번도 정상을 보지 않았어요. 정상 밑에 있는 주검을 보고 산을 오르죠. 그래서 제가 더욱 이 영화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작품을 시작하면 저는 절대 지름길로 가지 않아요. 무조건 정도를 가는 거죠.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어요. 정작하면 당장은 힘들지만,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긴다는 것을 제 스스로 믿고 있어요.”

싸이 ‘대디’ 빌보드 ‘핫100’ 97위 첫 진입

뮤직비디오 유튜브 4000만 뷰 돌파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7집 타이틀곡 ‘대디’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에 진입했다.

지난 1일 공개된 ‘대디’는 8일 오전(현지시간) 업데이트된 12월 19일자 빌보드에서 싱글차트인 ‘핫 100’ 97위로 처음 진입했다.

이로써 싸이는 ‘강남스타일’과 ‘젠틀맨’, ‘행오버’에 이어 아시아 가수 최초로 4곡 연속 빌보드 메인차트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며 월드스타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앞서 싸이는 ‘핫 100’에서 ‘강남스타일’로 7주 연속 2위에 올랐으며 ‘젠틀맨’은 5위, ‘행오버’는 26위까지 올랐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9일 “‘대디’는 ‘젠틀맨’이나 ‘행오버’처럼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둔 프로모션이 전혀 없었기에 이번 ‘핫 100’ 진입은 더욱 의미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디’는 빌보드의 다른 차트에서도 순위권에 들었다. 라디오 에어플레이 횟수와 판매량·스트리밍 횟수를 합한 ‘댄스



/일렉트릭 디지털싱글스’ 차트에서 12위,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한 ‘핫 댄스/일렉트릭 송스’에서 6위, 스트리밍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댄스/일렉트릭 스트리밍 송스’에서 5위, ‘빌보드 트위터 톱 트랙스’에서 5위, ‘유튜브’ 차트에서는 6위를 기록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도 9일 오전 유튜브에서 4000만 뷰를 돌파했다. 더블 타이틀곡인 ‘나팔바지’도 1000만 뷰를 돌파해 총 5000만 뷰를 넘어섰다. 중국에서의 인기도 이어졌다. 대표 음원사이트 QQ뮤직의 뮤직비디오 차트에서 9일 현재 전체 차트 1위, K팝 차트 1위를 기록 중이다.

역시 ‘유즈님’

갤럽, 유재석 4년 연속 ‘올해를 빛낸 개그맨’

‘유즈님’(유재석을 하느님에 빚낸 표현)이라는 별명이 역시 과하지 않다. 유재석은 9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공개한 ‘올해를 빛낸 개그맨’ 1위에 올랐다. 같은 조사 4년 연속 1위다.

응답자 절반 이상(51.3%)이 올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개그맨으로 유재석을 꼽았다.

유재석은 MBC TV ‘무한도전’을 비롯해 SBS TV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KBS 2TV ‘해피투게더 시즌3’, SBS TV ‘동상 이몽, 관중이 관중’ 등 지상파 3사의 주요 예능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올해는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진행까지 맡으면서 비지상파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유재석은 2005~2009년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2012년부터 다시 4년 연속 1위를 점하고 있다.

2위는 개그우먼 이국주(12.9%)가 차지했다. 이국주는 지난해 유재석 ‘호로록~’으로 큰 인기를 끈 데 이어 올해도 tvN ‘코미디 빅리그’, SBS 파워FM ‘이국주의 영스트리트’, MBC TV ‘나 혼자 산다’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3위는 KBS 2TV ‘우리 동네 예체능’(KBS2)과 SBS TV ‘스타킹’을 진행 중인 강호동(10.4%)으로 나타났다. 4위는 김준현(9.5%), 5위는 박명수(8.4%)가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10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면접해 나온 결과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4%포인트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0일(음 10월 29일 庚申)

子	48년생 오랜 세월 속의 염원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겠다. 60년생 오감을 만족시키는 기쁨이 보이니라. 72년생 참으로 희귀한 기회를 접하게 될 것이니 놓치지 마라. 84년생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7, 16
丑	49년생 막연한 미련을 버리고 결단성 있게 차치 해버려야 추진력이 생긴다. 61년생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73년생 명백하게 드러낼 것이다. 85년생 성취를 표현하는 것보다 우회해서 비유함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28, 38
寅	38년생 집중하고 있지 않다가 열렬결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 50년생 약간의 수정하면 된다. 62년생 첫눈에 미심쩍은 것은 절대로 아님을 알자. 74년생 손풍에 뜻을 단다. 86년생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52, 07
卯	39년생 의외로 빨리 처리되는 형국이다. 51년생 불안전하지 만 무리가 없겠다. 63년생 점점 더 가속도가 붙는다. 75년생 길조가 보이니 세심하게 보라. 87년생 변화를 추구한다면 발전하는 양상을 띤다. 행운의 숫자 : 44, 53
辰	40년생 상호적일 수밖에 없다. 52년생 대체로 순조롭게 전개될 것이니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64년생 설마 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리라. 76년생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80, 59
巳	41년생 정곡을 찌러서 본질을 파악하지 않으면 겉돌면서 헛고생만 할 뿐이다. 53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풍성한 성과를 거두는 날이다. 65년생 원하고 있었던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77년생 해묵은 것과 결별하라. 행운의 숫자 : 60, 90

午	42년생 생소한 길목에 놓여 있으니 넘겨지지 말아야 한다. 54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이다. 66년생 안정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8년생 무의식중의 방만한 마음이 허점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행운의 숫자 : 71, 22
未	43년생 미루지 말고 생각났을 때 깔끔하게 마무리하라. 55년생 잠정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아가야한다. 67년생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면서 진전을 보이는 시기이다. 79년생 직진하는 비가 많아서 대단히 분주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61
申	44년생 원대한 계획으로 임해야 값진 수확을 할 것이다. 56년생 머지않아서 한계점을 드러내게 되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68년생 불기파하다면 차선책을 택하라. 80년생 결정적인 시기에 거의 임박했다. 행운의 숫자 : 76, 01
酉	45년생 간절히 바라다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57년생 과욕을 부렸다가는 큰코다치는 수가 있다. 69년생 아무것도 아니니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81년생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5, 35
戌	46년생 장애물이 제거되거나 불리한 관계가 해소되는 단계이다. 58년생 균열이 가기 전에 예비 점검을 확실히 하는 것이 안전하다. 70년생 아낌없는 찬사를 받으리라. 82년생 약점을 보완한다면 거의 완벽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93
亥	47년생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 59년생 근거가 확실하다면 실행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71년생 재원이 왕성해 보이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83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행운의 숫자 : 36, 7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 환영!” ☎010-9790-8237

